

# 민선 8기 출범 3주년 성과·비전 공유

## 최경식 남원시장 “남원 발전 위해 함께 뛰자”

최경식 남원시장은 1일, 민선 8기 출범 3주년을 맞아 시민과 함께 걸어온 3년을 되돌아보고, 향후 비전을 공유하기 위한 기념식과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기념행사는 기관사회단체장, 주민, 직원, 표창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7월 시정 소통혁신의 날 행사로 병행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최 시장은 “지난 3년간 모두가 함께 해 주신 덕분에 △공약 이행을 80% 돌파하고 민선 8기 최대 성과로 꼽히는 △전북대 글로벌 캠퍼스 설립 등 남원 대도약을 위한 국립기관 유치 △역대 최대공모사업 선정으로 지역발전 동력 확보 및 역대 최대 규모 국·도비 확보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충출

한 출산 보육교육 복지시스템 구축으로 정주환경 개선 등 민선 8기 남원시정 변화를 눈부신 성과로 이룰 수 있었다며, 지난 3년 동안 시민들과 그 여정에 함께 해 준 1,500여명의 공직자들에 감사를 드린다”라고 소회했다.

이어 “지난 3년간 이뤄온 성과 위에 남은 1년도 남원의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믿고, 남원발전을 위해 함께 뛰자며, 시장부터 탁상행정이 아닌 더 발로 뛰고, 더 부지런하게 앞장서서 일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특히 최 시장은 “공공적으로 우리가 만들려는 더 머물고 찾고 살고, 살고 싶은 문화와 미래산업 도시 남원”을 만들기 위해 민선 8기 4년 차에는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를 중심으로 경찰



최경식 남원시장은 1일, 민선 8기 출범 3주년을 맞아 시민과 함께 걸어온 3년을 되돌아보고, 향후 비전을 공유하기 위한 기념식과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수원원 유치와 경찰특성화고 육성 등을 연계하여 경찰특화도시로 조성하고 국립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과 국립의화전문대학원 설립 등 국립기관 유치를 통해 장기적인 성장 인프라를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주 여건도 더욱 세심한 배

나지 않는 남원, 더 응성하는 남원, 살고 싶은 강소도시 남원을 만드는 데 혼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최 시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시정 운영 소회 및 4년 차 남원 시장 운영 방향 등 앞으로의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심민 임실군수 “천만관광 임실시대 달성할 것”

“오늘을 만들어낸 11년, 이제 천만관광 임실시대가 열립니다.”

민선 6기부터 8기에 이르기까지 임실군 최초로 내리 3선을 지낸 심민 군수는 임기 12년 중 마지막 남은 1년을 앞두고 남다른 소회와 각오를 밝혔다.

심 군수는 1일 민선 8기 3주년을 맞아 열린 전직원 청원조회에서 “지난 2014년 깨끗한 군수, 일 잘하는 군수, 임기를 마치는 군수가 되어 보내주시는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군민들께 약속했는데 어느덧 민선 6기와 민선 7기를 지나 민선 8기까지 이제 1년만을 남겨놓게 됐다”며 “그 길을 결코 쉽지 않았지만, 군민과 함께, 여기 계신 직원

분들과 손잡고 이뤄낸 성과들이 천만관광 실현을 목전에 둔 지금의 임실을 만들었다.”고 남다른 소회를 표명했다.

이어 그는 “임실이 관광에는 불모지나 다름없었지만, 한국관광공사 발표에 따르면 임실군 생활 인구가 2018년 498만 명에서 지난해 888만 명으로 78% 증가했다”며 “특히, 올해 5월 한 달 동안 102만1,608명이 방문해 최다 기록을 달성했다”며 “임실방문의 해를 맞은 올해 천만관광을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선 8기 성공을 위한 확실한 업무 추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주문했다.



민선 6기부터 8기에 이르기까지 임실군 최초로 내리 3선을 지낸 심민 군수는 임기 12년 중 마지막 남은 1년을 앞두고 남다른 소회와 각오를 밝혔다.

심 군수는 마지막으로 “돌이켜 보면 지난 11년을 도전과 노력의 연속이었다”며 “이제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 고민도 많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지만, 남은 임기 오로지 군민들만 바라보며 끝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출발선에 서지 않으면 결승선도 통과할 수 없다”며 “지금부터 각자 업무에 새롭게 도전하고, 출발선에 서는 용기를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최영일 순창군수 “군민과의 약속 지켜나갈 것”

순창군이 민선 8기 출범 3주년을 맞아 군정 성과를 되돌아보고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기념행사를 1일 성황리에 마쳤다.

행사는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청원조회를 시작으로 언론인 간담회, 사회복지시설 방문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공직자와 군민이 함께 한 의미 있는 자리로 꾸며졌다.

최영일 군수는 청원조회에서 “그동안의 변화는 군민의 신뢰와 공직자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군민과의 약속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순창군은 민선 8기 지난 3년 동안 전

국 기초자치단체장 공약이행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SA)을 획득하며 군정 운영의 신뢰성과 실행력을 입증했다.

아동행복수당과 대학생 생활지원금, 청년 종지통장, 농민기본소득, 어르신 이마용비 등 생애주기별 보편복지를 정착시킨 정책도 주목받고 있다.

정주인구 3만 회복을 목표로 한 주거 정책, 교육발전특구 지정,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었다는 평가다.

또한 언론인 간담회를 통해 군정 성과를 설명하고, 군민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지역 언론과 공유했으



순창군이 민선 8기 출범 3주년을 맞아 군정 성과를 되돌아보고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기념행사를 1일 성황리에 마쳤다.

며, 오후에는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복지 실천 의지를 현장에서 전했다.

최 군수는 “도전의 연속이었던 지난 3년은 순창의 내일을 위한 기틀을 다

져온 시간이었다”며 “남은 1년 동안도 흔들림 없이 군민의 삶을 더욱 따뜻하게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 남원시보건소, 온열질환자 발생 따라 집중관리체계 가동

남원시보건소는 첫 온열질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건강취약계층 방문건강 등 집중 관리 체계 가동을 강화하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열경련으로 온열환자 신고가 접수되었다. 환자는 40대로 고온에 노출되었으며, 귀가 중 허리와 다리 등의 경련 증상이 발생하여 구급차를 통해 응급실에 이송되어 치료 후 퇴원했다.

이에 남원시보건소는 폭염 대비 건강취약계층 7,000여명의 건강관리를 위해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전문인력 50명으로 방문건강관리지원단을 구성했다.

대상자 안부 확인 및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폭염대비 물품(쿨도시) 지원, 만성질환자 복약관리, 폭염 대비 건강수칙 홍보 및 응급상황 대처 방법 교육 등 총출력 건강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며,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보건소는 첫 온열질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건강취약계층 방문건강 등 집중 관리 체계 가동을 강화하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열경련으로 온열환자 신고가 접수되었다. 환자는 40대로 고온에 노출되었으며, 귀가 중 허리와 다리 등의 경련 증상이 발생하여 구급차를 통해 응급실에 이송되어 치료 후 퇴원했다.

이에 남원시보건소는 폭염 대비 건강취약계층 7,000여명의 건강관리를 위해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전문인력 50명으로 방문건강관리지원단을 구성했다.

대상자 안부 확인 및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폭염대비 물품(쿨도시) 지원, 만성질환자 복약관리, 폭염 대비 건강수칙 홍보 및 응급상황 대처 방법 교육 등 총출력 건강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며,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여름 물놀이 남원에서 즐겨요”

남원시는 올여름 시민과 관광객을 위해 요천 물놀이시설과 교통공원 물놀이장의 2곳을 운영하며, 각각의 매력과 특색을 살려 여름철 남원을 찾는 이들에게 시원한 휴식처를 제공할 예정이다.

요천 물놀이시설은 요천 음악분수 인근에 위치하며,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운영하며 하루 3회(10:30, 13:30, 16:00), 각 90분간 운영되고, 유수풀, 어린이 물놀이장, 바닥분수 등 다양한 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교통공원 물놀이시설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개방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바로 옆에는 산림욕장이 자리하고 있어 물놀이와 함께 자연을 느끼며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족 단위의 방문객들에게 인기가 높다.

두 시설 모두 매주 월요일은 정기휴무일이며, 우천 시에는 안전을 위해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지역 소식 통

### 임실군, 여름 휴가철 산림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임실군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간 계곡 방문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을 정해 특별단속반을 운영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간 및 계곡 내 쓰레기 투기 행위 △산림 내 취사 행위 △행정기관에서 설치한 위험 표지 등의 이동 및 훼손 행위 등이다.

군은 특별기동단속반 4개 반 21명을 편성하여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산림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실시할 예정이다.

불법 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했을 때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 남원시, 등굣길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 전개

남원시는 1일 오전 8시부터 도통초 정문 등 3개소에서 미래세대 등굣길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시민 의식을 제고하고,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통해 교통안전 문화를 확산하고자 추진되었다.

캠페인에는 시청 교통과, 남원경찰서, 남원교육지원청, 도통초 등과 시민경찰연합회, 자율방범연합대, 녹색어머니회, 패트롤맘, 모범문전자회, 한국자유총연맹 포순이여성회 등 6개 교통봉사단체가 참여해 공공기관과 시민단체가 협력하는 모습으로 캠페인의 의미를 더했다.

참석자들은 스피커를 내시작 30km 이하 서행,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차차 금지, 횡단보도 이용 시 안전 수칙 준수, 무단횡단 금지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했으며, 학생을 대상으로 안전지도를 병행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 임실엔 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